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의 분포와 격차 분석

An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and Regional Disparities of Support Infrastructure for Instructional and Learning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Higher Education

윤성은¹, 김영실²

Sung-Une Yoon¹, Young-Sil Kim²

요약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을 개인의 경험 차원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의 구조적 조건과 격차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장애인복지관·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공공데이터와 함께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공공데이터 기반의 기술통계 및 지역별 비교 분석으로, 시·도별 장애 관련 지원 기관의 분포, 초·중등 교육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인프라의 밀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활동지원 및 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차이는 대학의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수행 여건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 편의시설 설치율 비교에서 초·중·고등학교는 일정 수준의 설치율을 보인 반면, 특수학교는 가장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 제도적 관리 체계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이 개별 대학의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구조적 접근과 함께 대학 단계 접근성 환경에 대한 별도 진단과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을 둘러싼 환경적·구조적 조건을 공공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학 장애학생지원 정책과 지역 연계형 지원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 지원 인프라, 지역 격차, 공공데이터 분석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instructional and learning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higher education not at the level of individual experience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conditions and regional

1 Department of Broadcast Sound Engineering, Daelim University, Anyang,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syoon@daelim.ac.kr

2 Department of Software, Daelim University, Anyang, Korea [Professor]
e-mail: pewkys@daelim.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May 4, 2026), Review Result(1st: May 21, 2026), Accepted(June 13, 2026), Published(June 30, 2026)



© 2026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disparities in support infrastructure. Using public datasets, including records o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and special schools, disability welfare centers, and disability activity support services-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support resources that constitute the surrounding support ecosystem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addition, accessibility facility indicators by school level (primary, secondary, and special schools) are reviewed to contextualize institutional governance and baseline accessibility conditions. A descriptive statistical and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1) the distribution of disability-related support institutions by region and (2) the density of activity support infrastructure (institutions and workforce relative to beneficiaries) across regions. The results indicat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support infrastructure, including large gaps in the absolute number of institutions and in supply-demand-adjusted density measures. These disparities suggest that universities' capacity to support students with disabilities may be structurally constrained or enabled by regional support ecosystems. The findings imply that instructional and learning support in higher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as a regionally linked support system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institutional capacity. By empirically examining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using public data,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evidence for developing integrated, regionally connected support models and informing future policy directions.

Keyword :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structional and learning support, support infrastructure, regional disparity, public data analysis

1. 서론

최근 고등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고등교육에서의 포용성과 형평성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교육 과제로 강조되고 있으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과 지원 체계 구축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3]. 이에 따라 다수의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수업·평가·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학습 환경과 지원 체계 등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5].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대학 단계의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은 여전히 대학 간,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비교적 표준화된 지원 체계와 행정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대학 단계에서는 개별 대학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5]. 이는 장애대학생의 학습 경험이 개인의 역량이나 적응 문제로 환원되기보다, 대학이 처해 있는 구조적·환경적 조건에 의해 상당 부분 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의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은 강의실 내부의 수업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접근 환경, 지역 사회의 장애인 복지 및 활동지원 인프라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강의자료 접근성이나 평가 편의 제공은 대학 내부 규정과 운영 체계에 의해 좌우

되지만, 학습 보조 인력, 이동·생활 지원, 대체자료 제작과 같은 요소는 지역 내 지원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에 크게 의존한다 [6].

기존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학습 경험과 대학생활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7]. 특히 장애대학생의 적응 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학습 환경, 교수 지원,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학습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8].

한편 장애인의 교육 경험은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개인 역량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계와 환경적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9]. 특히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은 개인 요인 외에도 가족, 교육기관, 지역 사회 지원 체계 등 다층적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대학생의 실제 경험을 드러내고 지원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연구 결과가 개인 차원의 경험 분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최근 연구에서는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체계가 개별 대학의 행정적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대학 간 지원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 인프라를 포함한 구조적 조건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은 개인의 적응 문제를 넘어,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와 같은 구조적 조건 속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을 개인의 학습 경험이나 만족도 차원이 아닌, 이를 둘러싼 구조적·환경적 조건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 단계 장애학생 지원 환경의 특성과 지역 간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별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는 어떠한 분포와 격차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은 학교급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및 복지 인프라의 밀도는 대학의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수행 여건에 어떠한 구조적 함의를 갖는가?

본 연구는 특수교육통계,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장애인 활동지원 통계,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통계 및 지역별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토한다 [4][6][12].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지원 인프라의 불균형 실태를 제시하고, 대학 장애학생 교

수·학습지원이 개별 대학의 내부 역량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을 둘러싼 환경적 조건을 실증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향후 대학 단위의 교수·학습지원 정책이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를 전제로 설계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보다 현실적인 장애학생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을 둘러싼 구조적·환경적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통계 기반 서술적 비교 분석 연구로 설계되었다.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 아닌 지역 및 교육 단계이며, 대학 단계 장애학생 지원 환경을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의 분포와 접근성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① 장애 관련 지원 인프라의 지역별 분포 현황, ② 초·중등 및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학교급별) ③ 지역별 장애인 활동지원 및 복지 인프라의 밀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통계적 인과관계 검증보다는 구조적 격차의 양상과 정책적 함의 도출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대학 단계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부재하여 초·중등 및 특수학교 데이터를 통해 교육 환경의 접근성 관리 체계를 간접적으로 유추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지원 인프라의 양적 분포에 초점을 두었으며, 개별 기관의 서비스 질이나 실제 연계 효과를 평가하지는 않았다. 셋째, 공공데이터의 특성상 지역별·기관별 집계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인프라 분포와 대학 지원 수준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제도·시설·서비스의 구조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였다 [13]. 모든 자료는 최신 공개 연도를 기준으로 정제·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의 구성과 출처를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 현황 및 특수교육 관련 기관 분포를 포함한 통계자료,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포함한 시설자료,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자료, 그리고 지역별 복지 및 지원기관 분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다원적 자료 구성은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을 개인 수준이 아닌 지역 및 제도적 환경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분석 결과의 포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의 구성과 출처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분석 자료의 구성 및 출처 (2023-2024)

[Table 1] Composition and Sources of Analytical Data (Based on 2023-2024 data)

구분	자료명	주요 내용	제공 기관
통계자료	특수 교육 통계	장애학생 현황, 특수교육관련 기관분포	교육부
시설자료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자료	장애인 활동 지원통계	활동지원 수급자, 제공기관, 인력현황	보건복지부
기관자료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현황	지역별 복지·지원기관분포	관계부처

다만 자료의 특성상 동일 연도의 통합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 자료별로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연도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단일 연도 기준 횡단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점 편향을 완화하고, 각 지원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최신 정책 및 인프라 조건을 반영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현실 적합성과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을 직접 측정하는 변수가 아닌, 이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을 설명하는 대리 지표(proxy variables)를 설정하였다. 분석 변수는 크게 지원 인프라 변수, 접근성 변수, 지원 밀도 변수로 구분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변수와 지표의 구성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변수는 크게 지원 인프라, 접근성, 지원 밀도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표 2] 분석 변수 및 지표 구성

[Table 2] Analytical Variables and Indicator Definitions

변수 범주	변수명	조작적 정의
지원 인프라	특수교육 지원센터 수	시·도별특수교육지원센터 총 수
	특수학교 수	시·도별특수학교 수
	장애인 복지관 수	지역별장애인 복지관 수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학교급별편의시설 설치항목 충족비율
	정보접근 관련 시설	점자·음성·안내·정보접근시설포함여부
지원밀도	활동지원 기관 밀도	지역별활동 지원 기관 수/ 수급자 수
	활동지원 인력 규모	지역별 활동지원 인력 수

지원 인프라 변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수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별 지원 체계의 물리적 기반을 나타낸다. 접근성 변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정보 접근 관련 시설 여부를 포함하여 교육 환경의 접근 가능 수준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지원 밀도 변수는 활동 지원기관 밀도와 활동지원 인력 규모를 포함하여 수요 대비 지원 수준의 적절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수 구성은 대학 단계의 교수·학습지원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적 조건을 설명하는 대리 지표를 활용한 것으로, 구조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을 제공한다.

본 자료 분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첫째, 각 공공데이터를 지역 단위(시·도)로 재분류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제하였다.

둘째, 지역별 장애 관련 지원 인프라의 절대적 분포 현황을 빈도 및 비율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셋째, 학교급별(초·중등 및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장애인 활동지원 및 복지 인프라의 지역별 밀도를 산출하여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의 외부 환경 조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간 격차의 구조적 특성을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지역별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 분포 및 격차

[표 3]은 시·도별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의 분포 현황을 상위 및 하위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수는 경기 27개로 가장 많은 반면 세종은 1개로 나타나 지역 간 최대 27배의 격차가 확인되었다. 또한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 역시 수도권 및 일부 광역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으며, 활동지원기관 수에서도 경기 692개, 세종 23개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 자원의 총량이 구조적으로 상이함을 시사한다. 이는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지원 여건이 대학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역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도별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 분포 현황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시·도별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 분포 현황 (상위/하위 5개 지역 중심)

[Table 3] Regional Distribution of Support Infrastructur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p and Bottom 5 Regions)

구분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수	특수학교 수	장애인복지관 수	활동지원기관 수	활동지원인력 수
상위	경기	27	38	39	692	74,413
	경북	23	8	20	223	14,782
	전남	23	9	18	232	15,302
	경남	21	11	22	317	24,037
	강원	18	9	11	150	7,446

하위	제주	3	3	6	34	4,473
	광주	3	6	7	101	15,651
	울산	3	4	5	50	5,248
	대전	5	6	8	74	13,092
	세종	1	2	2	23	1,920

[표 4] 시·도별 활동지원기관 밀도 비교 (상위/하위 5개 지역)

[Table 4] Comparison of Activity Support Service Provider Density by Region (Top and Bottom 5 Regions)

순위	지역	활동지원기관 수	수급자 수	활동지원기관 밀도	비고
1	강원	150	12,035	0.0125	최고
2	전남	232	21,367	0.0109	
3	전북	206	19,336	0.0107	
4	경북	223	22,157	0.0101	
5	경남	317	31,995	0.0099	
...	...	...	...	...	
13	인천	152	24,525	0.0062	
14	광주	101	17,784	0.0057	
15	서울	450	79,464	0.0057	
16	제주	34	6,775	0.0050	
17	대전	74	16,236	0.0046	최저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밀도 비교 결과는 [표 4]와 같다.

활동지원기관 밀도를 함께 고려하면, 강원(0.0125), 전남(0.0109), 전북(0.0107)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대전(0.0046)과 제주(0.0050)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기관 수의 절대 규모와 수요 대비 실제 지원 여건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의 경우 활동지원기관 수는 450개로 많지만, 수급자 수가 79,464명으로 매우 많아 밀도는 0.0057에 불과하다. 반면 강원은 기관 수는 150개에 불과하지만 수급자 수가 12,035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일수록 수요가 집중되어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 동일한 법적 책무를 부담하더라도,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지원 인프라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한 외부 자원의 범위와 밀도가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활동지원 인력과 기관의 연계 가능성은 대학이 학습 보조, 이동 지원,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제약 또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2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 비교

[표 5]는 초·중등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합 설치율(9개 항목 평균)을 비

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일반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89.81%, 중학교 86.76%, 고등학교 83.76%로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설치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대비 고등학교는 약 6.05%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 설치율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 설치율

[Table 5] Comparison of Accessibility Facility Installation Rates by School Level

학교급	종합 설치율(%)	비고
초등학교	89.81	일반학교 중 최고
중학교	86.76	
고등학교	83.76	일반학교 중 최저
특수학교	98.64	전체 최고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교 신축 및 리모델링 시 편의시설 설치가 비교적 우선시되는 반면, 고등학교는 기존 건물의 노후화 및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편의시설 확충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특수학교는 98.64%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나타내, 제도적 관리 체계가 접근성 환경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수학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립 기준과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체계 아래 운영된다. 이는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가 법적·행정적으로 강제되는 구조적 조건이 접근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접근성 확보가 특정 시설의 유무를 넘어, 제도적 관리·운영 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의 교수·학습지원은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 환경(시설·정보접근)의 기본선 관리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만 본 연구의 시설 자료는 초·중등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 단계의 접근성 환경을 직접 비교·추정하기 위해서는 대학 편의시설 진단 자료나 캠퍼스 접근성 점검 자료를 결합한 후속 분석이 요구된다.

3.3 지역별 활동지원 및 복지 인프라 밀도 분석

앞서 [표 3]과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별 활동지원 인프라는 절대적 수와 상대적 밀도 모두에서 격차를 보였다. 활동지원 인력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경기 74,413명, 서울 63,076명으로 큰 규모를 보인 반면, 세종은 1,920명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14]. 이러한 인력 기반의 차이는 대학이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학습 보조, 이동·생활 지원 등을 운영할 때 실제로

동원 가능한 자원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

이상의 [표 3]~[표 5]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은 단순히 대학 내부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인프라 분포, 지원 밀도, 그리고 교육 환경의 접근성 수준과 같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은 대학 내부 자원만으로는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으며, 지역 기반 활동지원·복지 인프라의 밀도와 인력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단순한 대학 간 차이를 넘어, 지역 간 구조적 격차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이 개별 대학의 내부 역량만으로 설계·운영되기 어렵고, 지역 기반 인프라 조건과 제도적 관리 체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이 개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반 인프라와 같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학-지역-정부 연계형 지원 모델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4.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 방안: 대학-지역-정부 연계 모델을 중심으로

4.1 기본 방향: 대학 단독 모델에서 지역 연계 모델로의 전환

3장의 분석 결과는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이 대학 내부 역량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지역별 지원 인프라의 분포 격차, 활동지원 밀도의 차이, 그리고 교육 환경의 접근성 수준은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수행 여건에 구조적 제약을 형성한다. 이는 동일한 제도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은 '대학 단독 지원 모델'에서 벗어나 대학-지역-정부 연계 모델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에서 대학은 모든 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교육·복지·활동지원 자원을 연결·조정하는 지원 허브(hub)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수·학습지원을 개별 대학의 부담이 아닌, 지역 공동체 차원의 과제로 재정 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4.2 대학 차원의 교수·학습지원 강화 전략

4.2.1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기능 재정립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단순 행정 창구를 넘어 교수·학습지원 전반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첫째, 교수·학습지원센터, 도서관, 정보전산 부서 등 학내 유관 부서와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여 장애학생 지원을 단일 부서의 업무가 아닌 대학 차원의 공동 과제로 운영한다.

둘째, 지역 기반 활동지원 및 복지 인프라와의 연계를 전담하는 기능을 명확히 하여, 외부 자원을 교수·학습지원에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접근성 점검 체계를 정례화하여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온라인 학습 환경(LMS) 등 교육 환경 전반의 접근성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4.2.2 접근성 중심 환경 개선 전략

3장의 분석 결과는 교수·학습지원이 단순한 보조 인력 제공이나 행정적 편의 제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환경 중심의 접근성 확보와 결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 강의실 및 학습 공간의 정보 접근 설비(안내 체계, 보조기기, 디지털 자료 접근성) 우선 점검
- 학습 자료의 사전 접근성 확보(전자자료 변환, 대체자료 제작 연계 체계)
- 장애학생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성 기본선을 유지하는 예방적 관리 체계 구축

이러한 접근은 장애학생 지원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환경 설계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4.3 지역 기반 연계형 교수·학습지원 전략

4.3.1 지역 활동지원·복지 인프라와의 체계적 연계

3장의 3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밀도와 인력 규모는 대학의 지원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학은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 제공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의 공식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계는 단순 협약 수준을 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구조로 설계될 수 있다.

- 학습 보조 인력 연계 체계 마련: 지역 활동지원기관과 협력하여 강의 보조, 노트 필기, 실습 지원 등을 위한 인력 풀 구축
- 이동·생활 지원 정보 공유 및 상담 연계: 지역 복지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캠퍼스 내 외 이동 지원 및 생활 지원 연계
- 대체자료 제작 및 정보 접근 지원 협력: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역 도서관 등과 협력하여 학습 자료의 점자·음성 변환 지원
- 실습·현장 교육과 연계된 지원 방안 공동 모색: 전문대학의 경우 실습·현장 중심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수·학습지원의 실효성 제고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실습·현장 중심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수·학습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3.2 지역 격차를 고려한 차등 전략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기준은 오히려 대학 간·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지원 정책은 지역 인프라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전략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외부 인력 연계 지원 및 재정적 보완 장치 강화,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는 대학-지역 기관 간 협력 모델의 고도화, 지역 기반 협력 성과를 대학 평가 및 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4.4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

4.4.1 지역 연계형 정책 설계

정부는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을 개별 대학 단위의 단기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기반 연계 구조를 전제로 한 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대학의 장애학생 지원)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시 지역 기반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 명시 의무화
- 시·도 교육청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의무 규정
- 지역별 장애학생 지원 예산의 차등 배분 체계 도입

이를 위해 대학 장애학생지원 관련 재정 사업에 지역 협력 지표를 포함하고,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지원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4.4.2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공데이터는 지역별 지원 환경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대학이 지역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간 장애학생 지원 관련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학이 지역별 인프라 밀도, 활동지원 현황, 편의시설 수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은 개별 사례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구조적 진단과 정책 설계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으로 발전할 수 있다.

4.4.3 대학 편의시설 진단 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 공공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으나, 대학 단계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및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대학 접근성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개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공백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 캠퍼스 접근성 진단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 장애학생지원 정책이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환경 중심의 접근성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을 개인의 학습 경험이나 지원 만족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구조적·환경적 조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 통계,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의 분포와 격차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는 시·도별로 뚜렷한 분포 격차를 보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활동지원기관의 절대 수와 밀도 모두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활동지원기관은 지역별 공급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수요 대비 기관 밀도 역시 상이하게 나타났다. 둘째,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설치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접근성 확보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제도적 관리 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활동지원 인력 규모와 기관 밀도의 차이는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의 외부 연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이 개별 대학의 내부 역량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이 ‘대학 단독 지원 모델’이 아니라 대학·지역·정부 연계 모델의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은 지역 기반 활동지원 및 복지 자원을 연결·조정하는 지원 허브로 기능할 필요가 있으며, 교수·학습지원 또한 개별 학생에 대한 사후적 편의 제공을 넘어 접근성 중심의 교육 환경 관리 체계와 결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기반 협력 구조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차등적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단계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도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개인 수준의 학습 경험이

나 지원 만족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조적 환경과 실제 학습 경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역 및 학교급 단위의 집계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대학별·학과별 세부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의 질적 수준과 실제 연계 방식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와 대학 단위 자료를 결합하여 구조적 환경과 실제 학습 경험 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와 접근성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조적 과제이며, 향후에는 대학·지역사회·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연계형 지원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UNESCO, "A Guide for Ensuring Inclusion and Equity in Education," Paris, France, Mar. 2017. [Online]. Available: <https://unesdoc.unesco.org>
- [2]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Online]. Available: <https://law.go.kr> (accessed Apr. 2026).
- [3]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Online]. Available: <https://law.go.kr> (accessed Apr. 2026).
- [4] Ministry of Education, "Survey on educational welfare support for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jong, Republic of Korea, Dec. 2023. [Online]. Available: <https://www.moe.go.kr>
- [5] D. I. Kim, S. R. Jung, H. J. Ko, J. S. Kim, and S. Y. Kim,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adjustment proces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grounded theory,"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56, no. 1, pp. 65-95, Mar. 2013.
-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on activity suppor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jong, Republic of Korea, Dec. 2023. [Online]. Available: <https://www.mohw.go.kr>
- [7]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Report on Special Education," Asan, Republic of Korea, Dec. 2024. [Online]. Available: <https://www.nise.go.kr>
- [8] S. M. Lee and Y. J. Oh,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interaction, satisfaction with support services, academic self-efficacy, and college adjustment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Studies*, vol. 29, no. 1, pp. 69-95, Mar. 2013.
- [9] H. I. Kim et al., "A study on transition support systems based on factors influencing school-to-work transition of adul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37, no. 2, pp. 300-346, Jun. 2002.
- [10] S. H. Park, H. S. Park, J. Y. Park, and S. H. Lee, "A qualit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 transition to adulthood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7, no. 2, pp. 141-175, Jun. 2012.
- [11] J. Y. Kim, "Exploring structural limitation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university support system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practitioners'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60, no. 3, pp. 37-58, Sep. 2025.
- [12]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of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Asan, Republic of Korea, Dec. 2024. [Online]. Available: <https://www.nise.go.kr>
- [13] Public Data Portal, "Status of accessibility facilities in schools," Public Data Portal. [Online]. Available: <https://data.go.kr> (accessed Apr. 2026).
- [1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tus of activity support providers and workfor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jong, Republic of Korea, Dec. 2023. [Online]. Availabl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N_A00023 (accessed Apr. 2026).